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서(3:1-9)

오케스트라의 시작이 감사하다. 여러분의 기도해주셔서 세계선교사 대회를 잘 다녀왔고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와서 은혜받았고 다시한번 선교언약을 붙잡았고 남미선교 언약을 구체적으로 100팀 100교회 나라담당자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대구에서 남미 제자들이 40일정도 훈련을 받을것인데 의미를 깨닫고 힘을 얻고 올수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남미 100팀을 통해 현장에서 성경적전도가 일어나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도바울과 같이 1000년의 응답을 받으면 더욱좋다. 힘든일이 아니고 복음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때 전달되는 복음외에는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길이 없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 선교를 해야 한다. 하나님 은혜는 이거외에는 귀한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하나님 눈에 돈이 귀하겠는가? 세상에 모든 돈이 하나님것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마24:14말씀을 잘알잖은가. 세상의 끝은 이 복음이 모든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올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답이고 이유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발견된자가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축만하기를 바란다.

1.가장 고상한 지식

이단어는 익히알고 있는 단어이다. 다시한번 오늘 본문에서 만났으니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고상한 지식이란 것은 가장 높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있는데 이거 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뜻이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다 더 높은 지식이 어디있게냐는 메시지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니냐, 이것을 모르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사실은 바보된다는 뜻이다. 이런 지식이없는 사람은 무조건멸망한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간절하다.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사람을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 이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2절부터 유대인들을 주로 이야기 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방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이야기 한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확실하게 말했다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할례를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몸에 상처를 하나 내는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했다. 구원과 아무관계없고 중요하지 않고 필요없고 몸에 상처내는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대인들도 이상한 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회생제사이다. 처음부터 흐르는 단어 창3:15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속의 피제사이다.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한 단어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한것이고 종교인 것이다. 약속의 피 외에 모든 것, 그거외에 다른 어떤것도 강조하는 것은 종교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 보혈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보혈을 향하여 가야 한다 모든 단어가 다 그렇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할례를 그리스도의 보혈위에 둔것이고 약한것이다.그래서 개들이라고 하고 행악자라고한 것이다. 사도바울이 심한 단어를 썼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너희는 개이고 행악하는 자이다라고 했다.할례는 필요없다 괜히 몸을 상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났어 왜 그것을 주장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눈에 개다. 실랄하다. 우리는 이리되어야 한다. 믿음도 확실해야 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식도 확실해야 한다. 바늘끝같이 확실해야한다. 사도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느낀다. 다른 사도들도 아주 귀한분이다. 그런데 바늘끝까지 표현했다는 느낌은 잘 안든다. 지식이 중요하다. 틀리면 다른길로 가게 되어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려파요. 그리스도의 영적할례다, 육신적으로 자랑할거면 나는 더 많다고 하며 5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바리새인이었다. 육신적으로도 나보다 더 열심히였던 사람이 누구냐 그정도가 아니고 내가 율법의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자이다. 그래도 7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체험을 해보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 그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8절에 전부 배설물이었다 아무것에도 필요가 없다. 왜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내게 멈추어서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것으로 끝이다. 세상에 많은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면 끝이다 여기에 답이 나야 한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였다 율법에 가장 총명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뒤에 그런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이런 결론을 낸 것이다. 어찌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응답을 결정한다 기도응답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응답을 받아야 문이 열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다. 오직 여기에만 생명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나도 결국 바보가 된다는 사도바울의 결론이다. 왜냐면 지옥을 가야하니까 지옥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 새로운 문화를 만든 사람이었다. 놀라운 사람이다. 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는 기독교문화 하나님문화를 만든 사람이다. 대단한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운동 한 것이다.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문화를 만들어버렸다. 왜냐면 그 복음이 성경에 딱 맞았기 때문에, 바울이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었다. 유대문화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다 왜냐면 그들이 복음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바울은 이렇게 되었는가 정확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독교 문화는 온세상에 계속 번져간다. 모슬렘은 결국 기독교 문화에 당하게 되었다. 세상에 어떤 문화가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해도 안된도 결국 불교도 당하게된다. 사도바울의 전도가 하나님의 전도가 되었기에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전도이다.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보기에는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전도자 참 중요하다. 큰 전도 작은 전도는 사람눈에 있는 단어이다. 그냥 하나님 눈에는 영혼 한 사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카톡방에 올라오는 전도에 대한 보고 참 귀하다고 본다. 지속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지속해서 현장에서 이 복음전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전도를 세상에 보인 진짜 복된 사람이었다. 그는 구약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설명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에 서 있었다. 현장에다 니니 않고 제자를 따로 세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창3:15절 여자의 후손을 당연히 말했을 것이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약속의 피를 말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출애굽 하는 그날 저녁에 발랐던 어린양의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했겠다. 증거는 꼭차고넘쳤다 구약성경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기 전도현장에서 일어났던 증거들을 얘기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앓은 병이 가 일어났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는데 귀신 나갔어, 스게와의 일곱아들들은 그리스도 이야기 하다가 귀신에게 당했다. 너희도 그들처럼 그리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너희들도 귀신

을 쫓아낼 수 있다 증거 많이 있다.우리도 그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구약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약속의 피를 말할 수있었다.그전에는 그냥 이야기 수준이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많은 교회들이 구약을 안쓴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것이라고 그러면 두란노 서원에서 구약으로 성경을 말했는데 로마감독에서는 더큰 전도를 했는데우리는 이것을 미국에서 남미에서 해야 한다. 눈을 뜨고 흐름을 보라. 어떻게 해서 사도바울이 이런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지식은 없다.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이라고 이것을 오직으로 받지 않으면 개야 행악자야 이언약없이 할례는 몸을 상하는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의미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2.발견

9절에 보면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앞에 8절 중반과연결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했다.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다.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네가 LA에 살고 있구나 발견되기를 바란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있는지 다 아신다. 그런 수준을 이야기 하기 위해 발견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사도바울처럼 되면 발견된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우리가 어디있는줄을 발견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그러기에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이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정도로 되야 한다. 어려운일 아니다. 우리중에 상당히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도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언약을 잡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시니 우리는 발견되어진 자들이다. 복음문화를 만들고 참된 전도운동문화를 만들고 남미에 100팀 200팀 300팀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저 혼자 그림이다. 100팀 정도만 해도 200명이니 상당하다 1년 내도록 다닐 수 있다. 제자들은 상당히 준비되어있고 경제만 준비되면 된다. 경제도 상당히 준비되어가고 있다. 때가 올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200팀이면 400명인데 어떻게될까? 남미 전체를 1년 내도록 다니는 것이다.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인구가 6억인데 만일 1000팀이면 2000명 어찌 생각하는가 가슴이 뛰지 않은가? 이것을 위해 미국에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미국의 문을 여시면 당연히 미국교회도 살리신다. 문만 여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왜냐면 복음이 틀려서 죽어간다. 복음이 원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은가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미국교회를 살릴 수있다. 이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을 펴놓고 복음이 무엇이라고말할 수 있는 사람만 준비하면된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이시대의 영웅으로 살 수 있다. 한교회만 살려도 영웅적인 삶이된다. 그 다음에 무슨일이 있을지도모른다. 남미는 황금여장이다. 천주교문화 뒤집을 수 있다. 새로운 복음문화 기독교 문화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복음운동 전도운동 문화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는 이유이다. 안그러나? 목표 없으면 힘없다. 가슴에 들어와서 여러분안에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집인가 집이면 좀더 기도 필요하다. 이것은 소망이고 은혜고 힘이다. 이런거 아니면 왜 사는가 살 이유가 없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어디 있겠는가 어려움을 무엇으로 통과하겠는가 물론 응답으로 통과하겠지, 응답오기전에도 살아있어야 되잖은가.. 무엇으로 살아있겠는가 무엇으로 사단에게 안당하고 살아있겠는가 언약과 사명이다. 이것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 전쟁을 하고있는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것이다 시간표. 왜 우리가 이런말을 할 수있는가 성경이 그렇다. 어려움 없었던 렘넬트 있었는가 어려움 없었던 성경의 인물 있었나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보라고 성경을 기록해놓으셨다. 답내야 한다. 오늘을 보고 있지

말고 언약붙잡고 내일을 보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언약을 잡아야 한다.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게 쉽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절망은 없다 모든문제는 해결이고저주에서는 해방이다. 이유는 한 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답이 그의 약속의 피이고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다. 이런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언약을 잡은 사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과연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인가 과연 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가 진짜 이것만 알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인가? 나는 정말로 그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고있는가 나는 그의 소원 전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는 하나님 눈에는 전도자 외에는 안 볼것이라고 생각한다. 믿는 사람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 있겠지만 오늘 발견이란말은 그냥 믿는 사람의 발견이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원과연관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미국, 남미에 하나님문화를 두고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에 대하여 어떤 기도를 가지고있는가 이런것들이 우리의 질문들이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많은 질문중 하나만 되도 전부가 다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일이아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발견되면 싹 다 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가슴에 맺힌것이있는 것이 사명아니겠는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느정도 열정이있는가 알수 있다. 14절에는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대를 향하여 목표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사도바울의 쫓대이다. 그것을 향에 인생전체를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다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전체를 하나님 소원에 담았는데 인생전체중에서는 표본이다. 사도바울은 인간중에서는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도 표본중에 한 사람이겠다. 그러나 저는 사도바울이 인간중에서는 하나님 눈에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바울이 조금 천국에 것을 ,, 땅에 것은 생각이 없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땅에것을 생각을 많이 했겠지,, 표현하기가 힘들다. 세월이 지난후에 결론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너는 천국을 중심으로안사니 사도바울이 이해가 안되지.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니 안믿을때도 그리 세상적인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옛날보다 더더욱 세상 적인 사람은 아니였겠지만 아직도 천국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 부르심의 상의 가치가 이런것들이 별로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개념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전도힘쓰고 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직 완성이 아니다.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바울이내보다 생각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깝겠다. 사도바울은 진짜 천국 중심으로살았기에 인생전체를 전도,선교에 둔 것을 아깝게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이 없으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필요없다. 결국 죽으면 지옥인데 땅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땅에 있을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잠시 살다가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고 그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것이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함도 아니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수 있다. 우리도 천국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많은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모든 생각, 가치과 방향, 선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지식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발견이 되어야 한다. 내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외에는 진짜 사실은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고 언약이 되므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